정상문 '입'에 盧 운명 달렸다

檢, "부인서 묵묵부답" 혐의 입증 주력

진술 내용따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오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27일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막바지 수사력을 모았다.

검찰은 특히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폭넓게 개입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입'이 이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보고 소환 직전까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상문 진술 변화 있나=검찰은 지난 22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구속한 뒤 매일 구치소에서 대검 청사로 불러내 관련 의혹을 추궁하고 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정 전 비서관의 진술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별 달라진 게 없다"던 종전 답변과 달리 "말할 수 없다"고 언급해 수사에 일부 진척이 있음을 내비쳤다.

그동안 정 전 비서관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00만 달러와 3억원, 또 상품권 1억원 어치를 받아 청와대 관저로 전달하거나 본인이 직접 처리했으며 청와대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빼돌려 퇴임 후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는 셈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단순한 금품의 전달자가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공범이라고 강조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그의 진술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도 말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조사를 계속하면 조금씩 변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던 정 전 비서관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만도 검찰은 매우 고무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자백을 하지는 않더라도 검찰이 제시한 각종 증거를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 결국, 검찰은 남은 사흘간 새 증거를 찾기보다 그간 수사 내용을 정리하며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최종 확인 작업'을 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 최대 변수=정 전 비서관의 진술 태도에 변화가 생기면서 정 전 비서관의'입'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의 변수로 떠올랐다.

검찰은 피의자가 도주할 염려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도 이를 토대로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사건에서 노 전 대통령이 도주할 염려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할 핵심 요소인 셈이다. 만약 정 전 비서관이 관련 의혹을 시인했음에도 노 전 대통령이 혐의를 극구 부인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법원이 동일한 상황을 놓고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 전 비서관 진술 내용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숨길 건 숨기고 유리한 점만 진술"

■ 盧 '피의자 권리' 강조 배경은

검찰보다 법정으로 무대 이동 포석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정상문 전 청와대총무비서관이 받아 대통령 관저로 전달한 100만 달러와 관련, 답변서에서 "사용처를 못 밝히겠다"며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대검 중수부가 보낸 서면질의서에 대해 본인이 직접 작성한 답변서에서 100만 달러의 사용처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적었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특히 서면질의서 마지막에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을 적으라'고 한데 대해 방어권 등 피의자로서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내용을 적는데 답변서 A4지 전체 16장 중 5장을 할애했다.

질의서를 보낼 당시 검찰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하거나 도주 염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런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무죄 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쓴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취지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숨길 부분은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진술하겠다는 것으로, 같은 맥락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대통령 관저에 건네진 100만 달러의 사용처도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명시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답변서 11장에는 ▲100만 달러는 권양숙 여사가 받아 채무변제에 썼다 ▲500만 달러는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정상적으로 받은 투자금이다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 빼돌린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은 전혀 몰랐다는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홈페이지나 언론을 통해 기존에 밝혔던 해명 이외에 새로운 내용은 검찰에서 밝히지 않고, 법정에서 다퉈보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만큼 '적어도 법적으로는' 유죄가 아니라는 점을 법정에서 입증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사팀 내부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답변서를 놓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의혹을 해소해야 할 의무는 저버리고, 피의자로서의 권리만 강조했다"는 불만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연합뉴스

盧측 '경호·법리 검토' 분주

대국민 메시지 계획 없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작업에 분주한 표정이다.

노 전 대통령 측의 점검사항은 김해 봉하마을에서 서울 대검찰청 청사까지 이동하는 방법과 실제 검찰 조사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대응책 등 두 가지다.

일단 이동경로나 방법에 대해선 경호상 이유를 들어 자세한 언급을 삼가고 있다.

김경수 비서관은 27일 "이동방법에 대해서는 경호팀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경호팀은 경호와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만 소개했다.

노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7시를 전후해 봉하마을에서 출발하지만 별도의 성명서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봉하마을에 나와있는 취재진을 향해 간단한 언급을 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통수단은 승용차보다는 버스가 우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까지 취재진이 집요하게 따라붙을 가능성이 커 경호상 이점은 물론 행여라도 불미스러운 사태를 막기 위해 버스가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점심식사는 차량 안에서 해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수행인원은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경수 비서관 등을 포함해 최소화할 계획이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이동방법보다는 검찰 조사에 대비한 법적 검토 작업에 더욱 신경을 쏟는 분위기다. 소환 준비는 문 전 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참모 출신인 전해철 김진국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상명 전 검찰총장, 이종백 전 서울고검장 등 노 전 대통령의 사법시험 17회 동기인 '8인회' 멤버들이 합류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단계 때까지는 별도 변호인단을 구성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 일정이 잡힌 후에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진 않았으며, 현재 참모들의 도움을 받아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소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중인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오는 30일 소환 조사키로 확정한 가운데 27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청와대 경호실에서 관계자들이 경호 및 이동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봉하주민, 盧 소환조사 규탄 집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를 사흘 앞둔 27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검찰의 노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규탄했다.

이들 주민의 집회는 노 전 대통령의 사과문 발표 이후 지난 18일 처음 열린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날 40여명의 주민들은 마을광장 인근에 모여 "농번기여서 바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두고 우리들의 억눌린 마음을 김해시민과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했다"며 "이명박 정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결국 소환조사로 보여주는 것에 대해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들 주민은 또 봉하마을에서 20여일째 취재를 하고 있는 취재진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을 욕되게 하는 취재경쟁에 조금은 책임져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주민들은 '전직 대통령 예우가 소환조사란 말인가', '망신 주는 소환조사 이명박정부 각성하라', '언론들이여 품위있는 취재를 바란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고향의 봄'을 부른 뒤 10여분 만에 자진해산했다. /연합뉴스

정세균 "모든 범죄 법 심판 받아야"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7일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박연차 게이트' 연루를 '생계형 범죄'로 옹호한 데 대해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이같이 말한 뒤, "모든 범죄는 범죄 그 자체에 대해서 법과 제도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며 엄정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단 과거 권력이라고 해서 아주 냉혹하고 엄격하게 재단을 하고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미루고 있지 않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천신일 의혹 등 현정부 권력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종증권 비리 연루

노건평씨 징역 5년

세종증권 매각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화삼·광용 씨 형제와 함께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세종증권 인수 청탁을 하고 29억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노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9천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정화삼 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6억7천여만 원, 광용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3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청탁하면서 거액을 받아놓고도 시골 촌부에 불과한 자신이 주변인의 민원을 들어준 것뿐이라고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건평씨에 대한 구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투자자모심
•월2부 수익금지급
•확실한 담보130%
•안전보장,수익보장,비밀보장
•최소 5,000만이상 투자가능
서강파이낸셜 ☎062)653-7500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홈페이지 www.ins13.kr 반갑다! 친구야
•일 시 : 2009년 5월 16일 토요일 저녁 6시 •참석대상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생 옛 20년전 은사님 광주 인성고 총동문회 임원 이사
•장 소 : 광주 인성고 모교 실내체육관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장
강천규 TEL : 011-614-0898 최성훈 TEL : 011-611-0442 송상훈 TEL : 010-7755-2753
※ 졸업 20주년 행사 추진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 바람
광주 인성고 총 동문회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알림
홈페이지 www.inscong.or.kr
•1부행사 : 축구, 배구, 족구, 줄다리기, 400m계주
•일 시 : 2009년 5월 17일 일요일 오전 9시 •2부행사 : 초청가수공연, 각기수 장기자랑, 레크레이션
•장 소 : 광주 인성고 모교 운동장 •특별행사 : 가족대항게임, 행운권추첨, 어린이마술사생대회
※ 광주 인성고 총 동문회장 : 박형욱 ※ 광주 인성고 총 동문회 사무실 연락처(062)603-3833

= 저마다 합격의 예쁜 꿈들, 無等과 함께하면, "꼭"이뤄집니다!! =
7·9級 공무원 전직렬
30 40 늦깎이 주부반모집 실한폐지 | 행교세관감법검마철교보보간복소기 정행무세사원찰약공정호건호지방술 | 향후 5년간 소방인력 8395명을 충원한다
시험일정 및 채용인원
•인원 { 국가직 9급 2320명, 7급 600여명 공채 / 지방직 7·9급 일반직 약4000여명 공채
•시험일: 지방직 9급 5월23일, 7급 9월26일 시행 / 서울7·9급 행정7월19일,기술직렬 8월17일예정
개강 5월 1일 (주·야 종합반 모집) (현재상담접수중)
본 학원 강의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세법, 회계학, 형사법, 민사법, 헌법, 경제학, 교정학, 복지학, 소방학·법, 공중보건학, 상식, 기타
= 주간반 2개월, 야간반 3개월 완성 =
=최선을 다하지 않고 꿈을 이루려는 것은 허영에 불과하다!! =
◦부대시설◦ •정독실300여석! •구내식당 •인터넷검색실! •지하주차장! •맞춤식 학원중 최신시설! •매월말 토요일 정기 모의고사 실시!
무등고시학원 www.mdgosl.co.kr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

공인중개사 광주 박문각 공인중개사전문학원
직장인, 주부, 학생을 위한
국비환급 100%
▶ 합격률 100% 책임 지도 관리 ▶ 출석부 관리, 숙제, 쪽지 시험 시행
▶ 박문각 교재, 동영상30%DC ▶ 기출문제 풀이(수요일:민법, 목요일:개론, 오후 3시~6시)
본원만의 합격비법 전수
개강 5월1일(금)
"전국 최다, 최고의 합격생 배출한 서울 박문각 합격 시스템(실강의)으로 운영
☎529-8838
■ 위치:운암동 광암고가 옆 삼애신협 2층
■ BUS:37번, 65번, 89번, 98번
■ BUS:운암고가 입구(제2광천교) 26번, 38번, 47번, 64번, 51번
■ BUS:서강정보대 입구 18번, 58번, 63번
상무지구에서 자동차로 5분거리

전의경 및 경찰행정학과 특채/남·여 순경 공채 경찰
개강 5월 1일(첫 진도 첫 페이지)
전국 최강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명섭
※합격시스템
6개월과정 •2개월 완성 3회 반복 학습 •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한함 •수강료 교재 15% D/C
1년과정 •2개월 완성 6회 반복학습 •영어 기본이 안된 수강생 한함 •수강료 50% D/C 교재 15% D/C
주저하지말고 1년 수강료 96만 도전하면 합격의 지름길!
합격배출1위 교수진
경찰학 오탄 •신 경향 경찰학 개론 직강 •남부 경찰학원 전임 •광주 메가 경찰 학원 전임
수사 차주운 •강의경력 22년 •광주 순천 메인 전임 •광주 메가 경찰 학원 전임
영어 이방희 •경찰 영어 70% 합격좌우 •콕콕 찍어 쉽게 강의 •강의경력 15년
형법 허문표 •FIRST최강 형법 직강 •노량진 한국경찰 전임 •광주 메가 학원 전임
형소법 김헌중 •사시 1차3회 합격 •신림동 법원 경찰수강대상 10년 강의 •형소법출제경향이 확 바뀌고있다
경찰 전문 메가경찰학원 전남여고 후문 학원가
www.gmega.co.kr ☎226-5050